

작가와 만나고, 공원서 북크닉을… 서울 곳곳 독서로 물든다

서울시교육청, 독서프로그램 운영
어린이·가족 대상 다양한 체험 행사
성인 위한 저자 강연, 독서토론 등
텐트·빈백으로 꾸민 야외 도서관도

그림책을 읽고 비누를 만드는 어린이
체험부터 고전을 함께 읽는 저자 강연, 도
심 공원에서 즐기는 ‘북크닉’까지 온 가족
이 책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9월 한 달간
서울 곳곳에서 펼쳐진다.

서울시교육청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
‘그냥 좋아서(書)’를 공식 표어로 산하 23
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 어린이·청소
년·성인 등 전 세대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
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.

‘그냥 좋아서(書)’는 문화체육관광부와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올해
독서의 달 표어다.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을
나누는 데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
의미를 담았다.



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열린 ‘가족숲속도서관’ 행사.

/뉴시스

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
창작 체험부터 가족이 함께하는 야외 독
서 행사, 저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방식으
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
했다.

가족 단위 프로그램으로 도봉도서관은

6~8세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그림책을
읽고 비누를 만드는 ‘온 가족이 함께하는
도서관 DAY’를 운영한다. 동대문도서관
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고
시식하며 문화를 이해하는 ‘가족과 함께
지구 한 바퀴’를 진행한다. 정독도서관의

가족과 함께 정독(精讀)’에서는 온 가족
이 함께 독서토론 코칭을 받을 수 있다.

어린이를 위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.
송파도서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
로 ‘월데이 창의 미술 클래스’를 운영한
다.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3~4학
년이 류미정 작가와 그림책 이야기를 나
누고 행운 카드를 만들어보는 ‘류미정 작
가와의 만남’을 진행한다.

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저자 강연도 열
린다. 고척도서관에서는 ‘우리는 왜 여전
히 오디세이아를 만나는가’를 주제로 호
메로스의 ‘오디세이아’를 함께 읽어보는
시간을 갖는다.

강남도서관에서는 윤서영 작가가 MBT
I 유형별 스트레스 해소법을 주제로 독자
들과 만난다. 동작도서관에서는 ‘AI 시대
를 대비하는 우리아이 교육 로드맵’을 주
제로 저자가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.

도서관 밖에서 책을 즐기는 행사도 열
린다. 구로도서관은 구로거리공원에서

‘가족숲속도서관’을 운영한다. 서울시교
육청의 ‘2026년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’
캠페인의 하나로 야외 팝업도서관을 조성
해 힐링·읽·독서·체험을 결합한 가족 참여
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.

야외 팝업도서관에는 텐트와 빈백, 캠
핑 세트 등을 활용한 독서 휴식 공간을 마
련하고 가족 독서용 도서와 간행물을 비
치한다. 책과 야외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
도록 ‘북크닉 꾸러미’ 대여 서비스도 제공
한다.

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 평
생학습포털 ‘에버라닝’을 통해 신청할 수
있다.

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“특별한 이유
없이도 그냥 좋아서 책을 펼치는 9월이 되
길 바란다”며 “모든 세대가 책과 가까워질
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
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
다”고 말했다.

/이현진 기자 lhj@metroseoul.co.kr



인하대, 국내 첫 해양과학 박사 복수학위 도입

美 매사추세츠 다트머스대학과 협약
학술교류, 국제연구 네트워크 확대

국내 대학 해양과학분야에서 처음으로
한국과 미국 대학의 박사학위를 함께 취
득할 수 있는 복수학위 과정이 운영된다.

인하대학교(총장 조명우)는 최근 미국
매사추세츠 다트머스대학(UMassD)
과 해양과학 분야 박사과정 복수학위 프
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
고 31일 밝혔다.

이번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의 ‘해양블
루테크 미래리더 양성사업’의 하나로 마
련됐다.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수
산과학기술진흥원(KIMST)을 통해 2025
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 인
력양성 사업이다.



인하대와 미국 UMassD가 온라인으로 MOU를 체결했다. 백성현 인하대 교학부총장이 온라인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/인하대

두 대학은 2027학년도 1학기부터 복수
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.

선발된 학생은 인하대와 UMassD에서
각각 최소 1년 이상 수학하며 양 대학 교
수진의 공동 지도를 받아 교육과 연구를
수행한다. 학점 이수와 전공자격시험, 박

사학위 논문 등 양 대학의 졸업 요건을 모
두 충족하면 인하대와 UMassD의 박사학
위를 각각 받을 수 있다.

UMassD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다트머
스에 위치한 대학으로 해양과학기술학부
를 중심으로 해양학과 수산과학, 해양환
경 분야의 교육·연구를 수행하고 있다.

두 대학은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과
학생 공동 지도뿐 아니라 교수·연구자·대
학원생 학술 교류, 해양과학 공동연구, 국
제 연구 네트워크 확대에도 협력하기로
했다.

협약식에는 인하대 백성현 교학부총
장, 조장천 대학원장, 조동규 자연과학대
학장과 UMassD 랍프라스드 발라수브라
마니안 부총장, 테스파이 메레시 부교무
처장, 케빈 스톡스베리 대학원장 등이
참석했다.

/이현진 기자

상일동 5개 빌라단지, 1492세대 아파트로

서울 강동구 노후 단지 통합재건축
498세대→1492세대… 최고 29층

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5개 노후 연립주
택 단지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여 기
존 498세대에서 1492세대 규모로 재건축
된다.

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계획위
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
고 ‘상일동 빌라단지 통합 재건축사업 정
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’을 수정
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.

대상지는 강동구 상일동 174번지 일대
8만2640.7㎡다. 1986년 준공된 현대·삼
성·우성·효성·대림 등 5개 노후 연립주택
단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해 재건
축한다.

현재 498세대인 주택은 공공주택 121세
대를 포함해 총 1492세대로 늘어난다. 건
축물은 최고 29층 규모로 계획됐다.

서울시는 개별 단지별로 나뉜 토지이용
을 통합하고 공원과 보행체계, 도로 등 기



강동구 상일동 174번지 재건축 조감도. /서울시

반시설도 함께 정비한다.

대상지 북쪽에는 명일근린공원, 남쪽에는
승상산이 자리하고 있다. 건축물 높이는
명일근린공원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도록
계획하고,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서 공
원 방향으로 통행축을 확보한다.

기존 단지 내 공원은 위치를 조정해 소
공원으로 조성한다. 소공원에서 명일근린
공원 산책로까지 폭 6m의 공공보행통로
도 설치한다.

교통시설도 정비한다. 서울시 관계자는
“단지 남측 상안로 일부 구간을 확폭하고
가·감속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
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/이현진 기자

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 계획 승인

인천시, 전체 부지 승인 완료
도시 조성, 기업유치 나서

인천시가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
단 전체 부지의 승인을 최종 완료하고 본
격적인 조성과 기업 유치에 나선다.

이번에 조성되는 복합형 도시첨단산업
단지는 공업지역 50만 7944㎡를 필두로
주거, 상업, 녹지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
된 자족형 복합도시로 태어난다. 단순한
공장 지대를 넘어 완벽한 정주 여건과 지
원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.

유치 업종 역시 정보통신, 연구개발,
소프트웨어, 첨단 제조 등 고부가가치 지
식산업에 집중되며 특히 대기 및 수질 오

염물질 배출 업종의 입주를 원천 차단
해, 도심 속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하는 친
환경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
이다.

김상길 시 미래산업본부장은 “이번 인
천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
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계양 테크노
밸리가 자족도시로 도약하고 경쟁력을
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”이라며, “앞으로
계양 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과 지식산
업이 융복합된 산업단지로 육성하고, 기
업유치 활성화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
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
다”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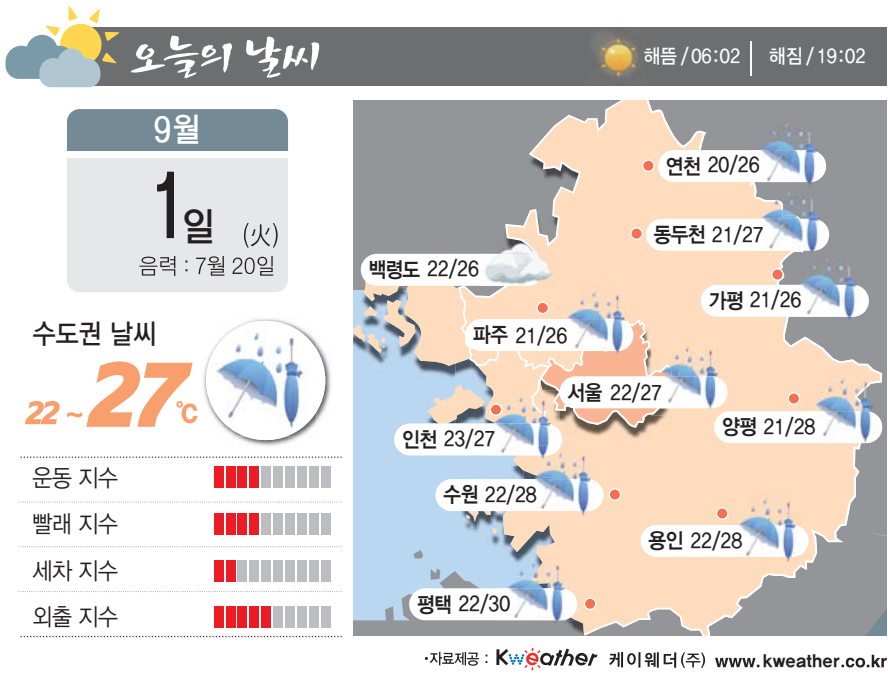
/인천=이숙영 기자 sy1321@

비수도권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6곳 선정

정부가 권역별 핵심 산업을 이끌 석·박
사급 첨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비수도
권 대학원 6곳을 ‘첨단산업 특성화대학
원’으로 신규 지정했다.

산업통상부는 ‘2026년도 첨단산업 특성
화대학원’ 신규 선정 결과를 지정 고시한
다고 31일 밝혔다. 선정된 대학원은 ▲중
부권 반도체(공주대) ▲동남권 항공방산
(경상대) ▲서남권 반도체(광주과학기술
원·GIST) ▲대경권 로봇(경북대) ▲강원
권 바이오(강원대) ▲전북권 로봇(전북대)
등 6개다. 신규 대학원에는 대학당 연간
30억 원씩, 최대 5년(3+2년)간 총 150억
원의 국비가 지원된다.

/세종=한용수기자



▲네팔 홍수 닻새째…영안실 포화·시신 부패에
집단 매장 /사진 뉴시스
▲대선 아닌 중간선거 앞 이례적 전당대회…美공
화 ‘급조 행사’ 논란

▲페제시키안 대통령 “이란, 충돌 원하지 않아”…
美공습 후 첫 반응
▲“등반객 소변으로 매년 빙하 154t 녹아”…몸살
않는 에베레스트

▲이스라엘, 네타냐후 아들 “중대한 위협”에 긴급
대피
▲“트럼프 베네수 석유확보, 민간기업 난색에 국
방부가 투자자로”